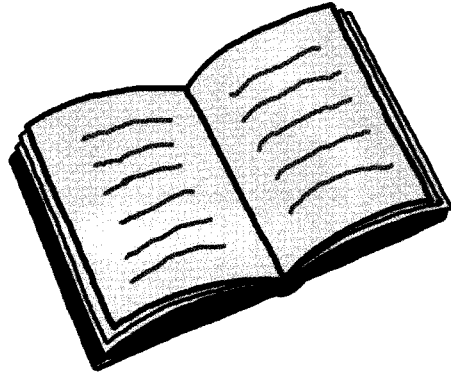


어려운 당뇨용어, 그것이 궁금하다!



◆ 안압

눈에는 '방수(房水)'라는 액체가 안압력을 유지한다. 정상적인 안압수치는 10~21mmHg다. 즉, 우리 눈이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눈 속의 압력이데, 이는 눈속을 채우고 있는 물(방수)의 양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방수가 정상보다 많이 만들어지거나, 배출되는 통로가 막힐 때 눈의 압력이 올라간다. 녹내장은 계속된 '고안압증'으로 시신경이 압박을 받아 서서히 죽어가는 질환이다.

◆ 망막

안구벽은 섬유막, 혈관막, 신경막의 세 겹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안쪽에 위치한 신경막은 매우 섬세하고 투명한 막으로, 망막이라고 불린다. 망막은 안구의 뒤쪽 2/3에만 형성되어 있으며, 발생학적으로는 뇌의 일부가 튀어나와 자라서 생긴 조직이다. 빛에 의한 자극을 받아들이는 시세포가 분포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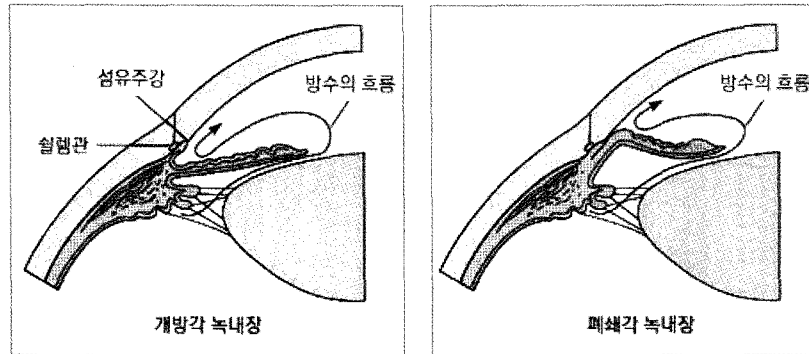
◆ 백내장

눈동자의 속이 희게 보여 붙여진 병명이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흐려져서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병으로, 초기에는 시력장애는 잘 알 수 없고, 오히려 비문증(시아에 모기같은 것이 보이는 현상)이나 눈의 피로 등이 나타난다. 진행에 따라서 안개 속에서 물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되며, 점차로 시력이 약해져 멀리도, 가까이도 보기 힘들며, 복시(물체가 2개로 보이는 현상), 다시를 느낄 때도 있다. 더욱 진행되면 나중에는 명암만을 알게 되고 실명상태로 된다. 이 기간은 흔히 수년에서 십수년에 이르며, 당뇨병에 의한 것은 경과가 빠르고, 외상성인 것은 수일 내로 실명상태로 되는 경우도 있다.

◆ 녹내장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 시신경이 눌리거나 혈액공급에 장애가 생겨 시신경의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시신경은 눈으로 받아들인 빛을 뇌로 전달하여 '보게 하는' 신경이므로 여기에 장애가 생기면 시야결손이 나타나고, 말기에는 시력을 상실하게 된다. 개방각 녹내장은 전방각이 눌리지 않고 정상적인 형태를 유지한 채 발생하는 녹내장을 말하고, 폐쇄각 녹내장은 갑자기 상승한 후방압력 때문에 홍채가 각막쪽으로 이동하여 전방각이 눌러 발생하는 녹내장을 말한다. 여기서 전방각은 각막의 후면과 홍채의 전면이 이루는 각을 말하며, 이것이 눌리면 방수가 배출되는 통로가 막히게 되므로 안압이 빠르게 상승하게 된다.



자료/네이버 건강검색

◆ 방수

안구의 앞부분인 각막과 수정체 사이를 채우고 있는 투명한 액체로서 수정체 주위에 있는 모양체에서 만들어져 배출관인 섬유주라는 조직을 통해 눈의 바깥으로 배출된다. 방수는 끊임없이 순환하며 수정체와 각막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 단백질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것을 단백뇨라고 한다. 성인의 경우 하루500mg이상, 소아는 1시간 동안 4mg 이상의 단백질이 배설될 때 단백뇨로 판정된다. 그러나 이보다 적은 양(하루 30~300mg)의 단백질이 배설되는 경우에도 미세 단백뇨라고 하여 당뇨병이나 고혈압, 사구체 신염에 의한 신장 질환의 초기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 크레아티닌

요소질소나 요산과 마찬가지로 체내에서 에너지로서 사용된 단백질의 노폐물이다. 크레아티닌은 근육 내에서 에너지로 사용된 후 크레아티닌이나 크레아틴 인산으로 형성되어 혈중으로 유출된 후 신장에서 요로 배설된다. 형성된 이후는 거의 일정하지만 근육량에 비례하므로 근육량이 적어지면 크레아티닌 양도 감소한다. 이 크레아티닌은 신장의 사구체에서 여과되는데 일부는 세뇨관으로 배설되지만 노폐물의 일종이므로 배설에 장애를 보이는 경우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음을 의미한다. >